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불기 2557년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렸다.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요식에서는 청소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외국인 일부 등이 나서 헌화와 헌축을 해 이웃의 의미를 더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봉축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시

초파일

홍사성

부처님 오신 날 밤
조계사로 봉축 꽃등 달러 가네

붉은 등 노란 등 파란 등 하얀 등
가슴 설레게 환하네

구경나온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이 극락 온 듯 즐거워하네

파란 눈 아가씨 코 큰 종각
곱슬머리 아저씨들은 더 좋아하네

모두모두 부처님처럼 웃네

내년에는 다리 아픈 고양이
배고픈 강아지도 함께 웃었으면 좋겠네



(시인, 불교평론 편집인)

“손을 잡고 행복의 길에 동행합시다”

조계종,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봉행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3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렸다. 조계종 총정진제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간화선 생활화로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길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는 큰 서원을 세웠다”며 “만 중생을 고타에서 건지리라는 대서원이었으니 우리 모든 불자들이 따르고 생활화해야 할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으려면 일체 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 아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참선을 생활화해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등국가가 되고 일등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이웃을 부처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아들이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며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하늘이 있다. 농부와

노동자의 정성이 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아름다운 정신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 노동자, 청년, 노인 등이 모두 제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발원한 스님은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길 바란다. 중생을 떠난 부처는 없으며 고통의 사바세계를 제도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진제 스님, 간화선 통제

정신문화 선도 국가 당부

이웃과 함께하는 삶 위해

장애우, 노동자들 꽃 울려

채대통령 “자타불이 국정 반영”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길에 동행하자”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자타불이’의 정신을 국정 운영 철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오른쪽)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각각의 다른 맛을 가진 수많은 강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한 가지 맛이 된다’고 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처지와 생각은 다르다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바다 안에서 가족처럼 화합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역사에서 민족정신의 구심이었던 불교가 다시 한 번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자타불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축 법요식에서 헌화, 헌축에는 이숙희 청소노동자, 우다야 라이 이주 노동자, 박경

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최형숙 두리모센터 대표, 김미·슬라이 난민부부 등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맛을 되새겼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 중앙총회의장 항적 스님 등 종단 지도부 스님들과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이우종교인, 우닌 흘라임 미얀마 대상 등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원 기자

“현행 제도로는 승려복지 성공 안돼”

쇄신위, 승려복지 개선 좌담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스님, 원로회의 의장)는 5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재 종단의 제도와 승려복지회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승려복지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가 재가자 국장 1명과 파견직 총무원 1명 등 모두 2명의 상근인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려복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무원 특정부서 산하에 승려복지국 등으로 위상을 높여 총무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려복지 예산을 종단 및 교구 예산에 포함해 함께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시금을 받는 스님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종단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는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종훈스님, 이용권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고경환 한국보건의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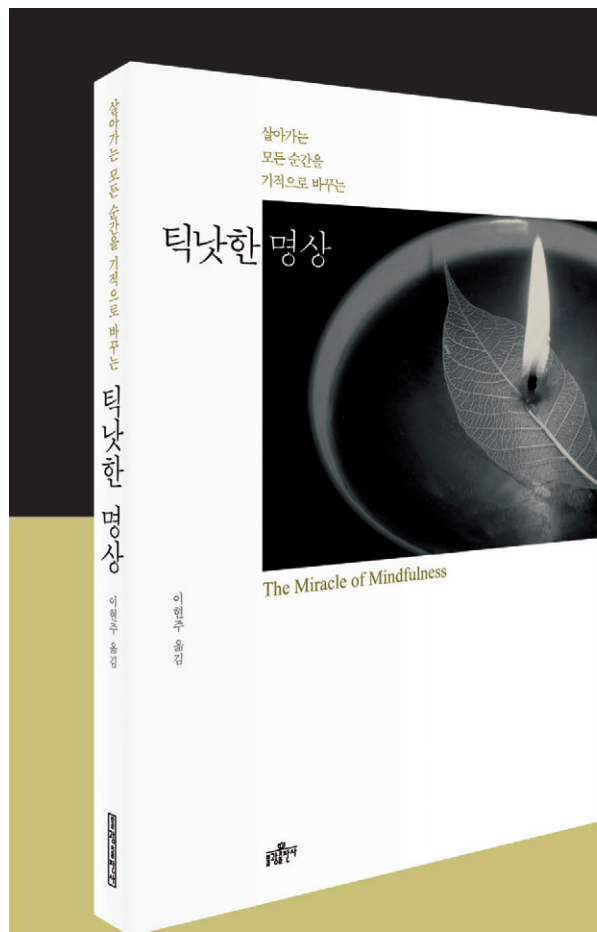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41호 INDEX

| | | | |
|--|---|-------------------------|---|
| 5월 가정의 달에 세기는 부처님 말씀 | 2 | 탁났한 스님 방한 특집 | 5 |
| 종합 연동회 세계 축제 '발돋움' 인천공항 연동 설치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호소 잇달아 | 3 | 합계가오 강의실 | 8 |
| | | 현각 스님 동국대 법회 | 9 |
| | | 학술·문화계 '약사여래' 국제세미나 열린다 | |



The Miracle of Mindfulness

먹고, 걷고, 일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는
탁났한 스님 명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탁났한 명상

이현주 옮김 | 160쪽 | 11,000원

1995년 최초 한국어판 출간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성찰과 감동을 전해온 탁났한 스님의 대표 명상 책

유나방송 정목 스님 추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관찰 수행 같기만 합니다. ‘출렁이는 물결도 물이듯이 어지러워진 마음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으로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미혹된 마음이 참마음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 되새기며, 스님 책이 많은 이의 미혹된 마음을 참마음으로 바꾸어놓기를 기대합니다.”

